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보다 강한 이방의 세계에 포함되어 살았다. 족장사에서는 자신의 보호와 함께 이방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추구했다. 이러한 다문화적 삶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야훼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나타나셨다. 타자이신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존재에게 희망을 일깨우신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씨앗이다.

---

## 약속의 신학 족장사의 다문화적 해석\*

---

한 동구 | 평택대

### 1. 문제의 제기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전승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단편적인 전승에서 현재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신학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벨하우젠(J. Wellhausen), 궁켈(H. Gunkel) 및 노트(M. Noth)에 이르는 역사비평적 연구는 '소위 자료비평'이라 평하는 문헌사적 연구에서 전승의 최초 형태(양식비평)와 발전과정(전승사적 비평)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다.<sup>1)</sup> 양식비평에서는 문헌단계를 넘어 구전단계에까지 거슬러

---

\* 이 논문은 2007년 평택대학교 교내학술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

1) 이들의 참고문헌에 대하여 한 동구, 「오경 이해」(평택: 프리칭 아카데미, 2006)의 참고문헌목록을 참조하라.

올라가 전승의 기원을 추적하여, 최초의 구전전승을 형성시키는 공동체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찾는 연구를 위해 비교문학적 관점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스라엘 작가들이 사용한 문학 유형(Form/Gattung)을 규명하고,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와 에집트의 문학과 비교하며, 또한 대중 문학의 양식들도 비교 자료로 이용하였다.

폰 라트(G. von Rad)는 이러한 역사비평적 연구의 선상에 서 있으면서도 성서의 신학적 의미를 추구하는 케리그마의 신학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성서의 역사적 이해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성서 전승의 역사에 더 밀착되어 전승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 즉 구속사를 구약 신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구약 신학(특히 1권: 오경)과 창세기 주석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고백한 케리그마적 상을 파악하는데 중심을 두었다.<sup>2)</sup> 따라서 그가 추구한 것은 구속사적 해석(Eine heilsgeschichtliche Exegese)이었다.

족장사에 대한 역사적이며 신학적 연구는 필자의 연구에서도 계속되었다. 족장사,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는 두 주제가 상호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나그네살이와 아들의 약속.<sup>3)</sup>

아뷔스트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 특별히 아브라함의 역사를 자신의 현-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유비시키면서 서술하였다. 나그네살이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선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듯, 포로기 중에 살아가는 자신의 현-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선포한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손의 약속'을 통하여 '정체성의 보존'을 약속한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야훼 신앙의 준수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보존은 바벨론에 대한 간접적 저항이며, 앞으로 있을 독립국가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다. 이방인의 땅에서 혈통의 상실은 곧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잃었던 국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sup>4)</sup>

2) 폰 라트,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원제는 Rad, G. von, *Das erste Buch Mose. Genesis(ATD 5)*, (Göttingen 1964). 폰 라트, 「구약 신학」(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 1976, II 1977).

3) 한 동구, 「오경 이해」(평택: 프리칭 아카데미, 2006). 계속하여 크리스토프 레빈, 「편집자 레빈」(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661-666쪽을 참조하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족장사 연구는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한 구속사적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야벳스트 및 그 해석자들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문화적 삶의 자리'이다. 그들은 그들보다 강한 외국인(혹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다. 그 가운데에서 한편으로 정체성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한편으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21세기 '다문화적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과 나아가 온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간과되었던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성서읽기'를 시도한다. 족장사에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야훼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적 삶의 원리'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족장사의 여러 본문에서 '다문화적 삶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지만, 창 18장도 중요한 '다문화적 삶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는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며, 동시에 다문화적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적 존재에게 희망을 일깨워 준다.

## 2. 창 18장 1-19절의 문학적 특징

본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 창 18장 1-19절의 문학적 특징과 구조와 전승사적 위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주석단위의 결정

#### (1) 단락의 시작

창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그 징표로 할례를 베풀기로 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그리고 창 18장 1-5절에서는 세 남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따라서 창 18장 1절을 새로운

4) 한 동구, "나그네살이 인생과 지손의 약속 (창 16장)," 「구약논단」 제 13권 1호 (통권 23호 2006. 331.), 12-30쪽.

단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 (1) 단락의 끝

이야기의 끝은 다소 모호하다. 세 남자들의 방문 이야기는 창 18장 15절에서 끝난다. 그리고 창 18장 20-33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앞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개된다. 그 사이에 장소의 전환을 알리는 보도(창 18: 16)와 하나님의 약속(창 18: 17-19)이 연결되어 있다.<sup>5)</sup> 장소의 전환 보도는 전후의 두 이야기(창 18: 1-15와 창 18: 20ff.)를 편집적으로 연결하고, 약속은 전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세 남자들의 방문 이야기(창 18: 1-5)와 하나님의 약속(창 18: 17- 19)을 함께 묶어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다.

### 2) 문학비평

창 18장 1-19절에서 16-19절의 편집구절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이다. 다만 세 남자의 방문과 야훼의 방문 사이의 불연속적인 문체가 제기된다. 레빈은 자료층과 편집층 사이의 불일치로 이해하였다.<sup>6)</sup> 그럼에도 편집층에서 왜 세 남자를 야훼로 해석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 3) 이야기의 구조와 전승사적 위치

나그네의 방문, 이들에 대한 조건 없는 극진한 대접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나그네들의 보답을 구성요소로 하는 이야기는 창 18장 1-19절 외에도 왕하 4장 8-17절에서 소개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이야기가 창 17장 15-19절에서 소개된다.<sup>7)</sup> 이들 세 본문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구성요

5) 17a와 20a에서 야훼의 말씀서두가 반복된다. 각각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의미하며, 창 18장 17-19절이 삽입절임을 나타낸다.

6) 레빈은 복수로 표현된 세 남자의 방문과 아브라함의 후대(창 18: 1b-2, 3<אֲנִי>까지, 4-5aa, 8aa <גַּלְתִּי>까지, 8ab, 16a)을 야훼기자 이전의 원전 자료로 보았으며, 이를 야훼스트는 야훼의 방문으로 해석하여 단수층으로 수정하였다고 하였다. 참조 크리스토프 레빈, 「편집자 야훼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237-246쪽.

7) 이야기의 단락은 창 17장 21절까지 계속되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19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다는 표현(וְהִקְמֹתִי אִתְּךָ בְרִית וְתָא אִתִּי) 내가 그와 함께 맺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19ba절)이 21절에서 재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וְתָא אִתִּי אֲקִים בְּרִית אִתְּךָ) 또 나의 언약을 나는 이삭과 세울 것이다 21a절). 그것은 이스마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소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강조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 본문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점은 보다 분명해지며, 창 18장의 본문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1) 창 18장 1-19절과 왕하 4장 8-17절의 비교**

수넬 여인의 이야기(왕하 4: 8-17)는 분명한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는 “옛날, 어디에 누가 있었다.”라는 어투로 시작한다. 이와는 달리 세 남자의 방문 이야기(창 18: 1-19)는 방문객으로서의 세 남자(혹은 야훼)의 방문으로 이야기가 시작한다. 이는 긴 이야기의 한 일화로 소개된다. 두 이야기 모두 극진한 손님대접을 보도한다. 전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자는 세 남자를 야훼 하나님으로 대하여 정성을 다한다.

전자는 수넬여인의 손님대접의 지극한 정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제안한다:

מה לעשות לך  
אֵלֶּיךָ אֶל־הַמֶּלֶךְ או אֶל־שָׂר הַצָּר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13aδ  
너를 위해 왕에게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13ae

그러나 수넬여인은 겸손히 이 제안을 거절한다:

וְתֹאמַר בְּחֹךְ עָמִי אֲנֹכִי שָׂבָּ  
그는 답하였다: “저는 내 백성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13b

수넬여인의 거절에도 엘리사는 그녀의 소원인 아들을 약속한다:

לֹא־מֵעַר הִזָּה כֵּעַ הִזָּה אֵתִי חֲבִיבָה  
내년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16aβ

그러나 세 남자의 방문 이야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님 대접이 극진했음에도 이러한 칭찬과 제안이 없고, 곧장 그들의 소원을 약속한다.

---

(창 17장 20절)의 삽입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방성을 보다 강조한다. 전자에서 (소원성취의) 약속은 인간적 배려에 대한 보답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나(보라! 너는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구나 13ay), 후자에서 (소원성취의) 약속은 신의 은총임을 보다 강조한다.

양자는 약속의 성취, 즉 고통에 아들을 얻는 것은 모두 불가능한 기적적 사건으로 신적인 권능만이 가능한 사건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함을 말한다: 그들은 노령으로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 (왕하 4: 14by과 창 18: 11).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기적적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전자는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한다. 반면, 후자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못믿는 태도를 야단친다: “어찌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가!” (창 18: 13b). 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강조한다(창 18: 14a; 참조 렘 32: 17, 27; 계속하여 사 40: 26; 59: 1).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질책에 수용적 태도로 반응한다: “나는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창 18: 15aβ).

끝으로 전자는 그 소원의 성취를 보도하면서, 이야기가 종결된다. 그러나 후자는 약속의 성취가 창 21장 1-3절로 미루어진다. 그것은 이 일화가 긴 이야기의 일부임을 보여 준다.

## (2) 창 18장과 창 17장 15-19절의 비교

창 17장은 계약과 할례의 이야기이다. 그 가운데 아들의 약속이 포함 되어 있어, 창 17장 15-19절은 손님접대와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답과는 전혀 다른 문맥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신적인 권능, 즉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두 이야기와 유비점이 형성된다.

이야기는 사라의 개명으로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시작된다. 이 이야기에 서는 신적 존재의 방문과 같은 사건이 없으며, 동시에 손님대접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다. 이로써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로운 은총이 전면에 서게 된다. 다양한 축복 중의 하나로 아들의 약속도 포함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 사라의 개명으로 시작된 이야기이지만, 행동하는 이는 오

직 아브라함뿐이다. 여성의 이야기는 배후로 사라졌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간단히 약속을 재천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회의적인 생각을 일축한다. 창 18장 1-19절에서와 같이 장황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적 수행 능력의 문제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적 명령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3) 비교의 종합

이상의 논의에서 창 18장 1-19절은 왕하 4장 8-17절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다시금 창 17장에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전승사적 발전은 시대적 상황의 전환으로 인해 생겨났다.

엘리아-엘리사 시절 북왕국은 경제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으므로, 엘리아-엘리사가 이끄는 종교단체(예언자 운동 공동체)에 많이 귀의하게 되었고, 두 예언자 역시 많은 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 수넴 여인에게 베풀었던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도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라의 웃음(פִּתְיוֹן)과 이삭(פִּתְיוֹן)의 탄생 약속에서 보여주는 언어의 유희에서 볼 수 있듯, 전형적인 아뷔스트의 이야기이다.<sup>8)</sup> 이 이야기에 는 하나님의 기적수행 능력과 인간의 회의가 전면에서 있다. 이는 포로 기적 상황의 산물이다. 포로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예언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렘 32: 17, 27; 계속하여 사 40: 26; 59: 1). 나그네살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한다. 이는 포로기에 나그네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일치한 모습이다. 이방인의 틈바구니에서 나그네살이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창 17장에서는 새로운 상황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제

8) 창 18장 16절과 17-19절도 모두 창 18장 1-15절의 아뷔스트 저자와 동일한 저자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9절에서는 이미 신명기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훼의 축복을 담은 18절은 아뷔스트 계열의 자료로 볼 수 있다.

나그네살이의 주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새로운 계약 공동체에서의 삶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서의 계약과 인간의 순종적 따름이 전면이 선다.

비교점	왕하 4장 8-17절	창 18장 1-9절	창 17장 15-19절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 소개	<sup>8a,d</sup> 어느 날 엘리사가 수벙에 지나갈 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sup>1</sup> 아훼께서 ...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 <sup>2a</sup> 그는 눈을 들어 보았다. 보라 그의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sup>15</sup>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래의 이름을 사래/사라이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하라
주인의 손대접	<sup>8a,b</sup> 그녀는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으로 들렀다. ...	<sup>2a</sup> 그가 ...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은)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그는 말하였다: ... <sup>4</sup>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	
손님의 선행보답 제의	... <sup>13a</sup> 엘리사가 ... 말하였다: “그녀에게 말하라! 보라! 너는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너를 위해 왕에게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주인의 거절	<sup>13b</sup> 그녀는 답하였다: “저는 내 백성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손님의 선행보답으로서의 아들 약속	... <sup>16a</sup>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년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sup>9</sup>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 <sup>10a</sup> 그러자 그가 “내년 이맘때 나는 네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sup>16</sup>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며 또한 그녀에게서 너의 아들을 줄 것이다. ...
주인의 회의	<sup>16b</sup> 그녀는 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 <sup>11</sup>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나이가 많아 (그래서)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sup>12</sup>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즐거움이 (이미) 사라졌으며, 내 주인도 늙었다.”	<sup>17</sup>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려 웃으며 그리고 ... 생각하였다: “백 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까? 또 사라도 구십 세인데, 그녀가 출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sup>18</sup>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당신(=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다.”
손님/하나님의 답변(약속의 확인)		<sup>13</sup> 아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느냐?” <sup>14</sup> 아훼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내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sup>19</sup> 그러나 하나님은 답하였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

비교점	왕하 4장 8-17절	창 18장 1-9절	창 17장 15-19절
주인의 (순종적 제)반응		<sup>15</sup> 사라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고 말하였다.	
아들의 출생으로 약속이 성취됨	<sup>17</sup> 그러나 그녀는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했던 내년 이 때쯤에 아들을 낳았다.	창 21장 1-3보도	창 21장 1-3보도

### 3.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 1)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 18장에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남자가 방문하였다. 이들은 후에 야훼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한 것이다. 신약성서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증언한다.

#### (1)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출애굽기 3장에서는 불꽃 가운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보도한다. 애굽 관리를 살해하여 쫓기는 신세가 된 모세는 바로의 추적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하였다(출 2: 11-15). 모세는 먼저 어느 우물가에 당도한다.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을 만난다. 이로 인해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과 인연을 맺게 하였다(출 2: 16-20). 여기에서 그의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 사건의 전개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 모세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련의 사건 과정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제 모세는 그의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드로의 양(떼)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가시덤불에서 불이 난 것을 보았다. 대개 가시덤불에 불이 나면, 불꽃이 확 타오른 후에 불은 삼시간에 꺼지고, 가시덤불은 재가 된다. 그러나 그 날은 불꽃이 계속 일면서 타고 있었다. 모세는 이를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갔다. 그 때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이에 모세는 “보

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약속의 땅으로의 인도를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이 들려왔다. 분명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자신을 계시하며 말씀하였다.

### (2) 하늘 사다리를 타고 아굽에게 오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0-22절에서는 아굽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보도한다. 아굽은 도망 중에 한 곳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잠을 잤다. 그 때 그는 그 곳의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였다. 그 날 밤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땅으로 내려와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 그 사다리 위에 무수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야훼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야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후에 여러 가지 축복과 함께 동행을 약속하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내가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굽이 잠에서 깨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왔다<sup>9)</sup>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 진실로 야훼께서 이 장소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 (3)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

한편 야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여 모세나 그의 백성과 말씀을 나눈다.<sup>10)</sup> 시 104편의 신화적-문학적인 표상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 휘장을 그의 장막으로 삼으시며, 물에 그의 누각의 들보를 세우시고,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로 삼고, 바람(=영)을 날개로 삼아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러한 하나님 통치에 관한 사상에서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며, 말씀을 나누기도 하신

9)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한 동구, “포로기의 성전사상, 「구약논단」 제 18집(2006년 8월 31일), 53-72, 특히 59, 60-61쪽.

10) 출 19: 9; 33: 9, 10; 34: 5; 민 11: 25; 신 5: 22; 31: 15; 참조 민 12: 5; 10.

(4)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화적-문학적 표상(시 104편)이나 하나님(야훼)의 사자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그네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창 18장에서 전개되는 사건은 야훼 하나님께서 마르레의 상수리나무 곁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시작한다(창 18: 1a). 창 18장 1절에서는 야훼께서 찾아오셨으나, 2절에서 세 남자(אֲנֹכִי וְשְׁנֵי אֲנָשָׁי שְׂרוֹשָׁא אֱלֹהִים)의 방문과 동일시된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인 세 남자의 방문을 유일하신 야훼의 방문으로 이해하였다.<sup>12)</sup> 따라서 세 명의 남자들의 방문을 야훼의 계시로 이해하게 한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소돔으로 향하는(참조 창 18: 16) 도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날이 뜨거워진 때, 아마도 정오쯤에, 아브라함은 이미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천막 앞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창 18: 1b), 이 때 그들은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을 것이며, 여행으로 인해 시장하였을 것이다. 나그네이신 하나님은 뜨거운 열기(חֹם וְחֵם) 커흠 하욘/날이 뜨거울 때) 속에서 여행 중이시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יְיָ אֱלֹהֵי)라 부르며, 이에 상응하여 자신을 “종”(אֲדָמָה/당신의 종)이라 부르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sup>13)</s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신하가 임금에게 또는 종이 주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겸양의 표현으로도 사용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표현으로도 사

11) 한 동구, “포로기의 성전사상,” 66-67쪽.  
12) 참조 왕 대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서울: 종로서적, 1995), 106쪽. 궁켈은 이들을 신적 존재로 이해하였다. 아곱이 압목 강을 건널 때, 한 사람과 씨름을 하였다. 이 자도 신적 존재를 이해된다(창 32: 25/한24). 참조 수 5장 13절; 삿 13: 10f. H. Gunkel, *Genesis* (HAT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2<sup>5</sup>), 195-196쪽.  
이와는 달리 폰 라트와 강 성열은 야훼와 두 신적 존재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전체적 의도의 오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폰 라트, 「창세기」, 223-224쪽. 강 성열, 「창세기 강해」(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65쪽.  
13) מִצָּאָה מִן כְּעֵינַי הֵן כְּעֵינַי מִן כְּעֵינַי(마짜 헨 커에네/~의 눈에는 은혜를 입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아뷔스트의 어휘로 이해한다. 레빈, 「편집자 야훼기자」, 645쪽.

용된다. 아브라함의 입으로 나온 이러한 표현들은 단지 공경의 표현이 아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야훼를 연결하는 특별한 관계를 표현해 준다.<sup>14)</sup> 현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찾아 오셨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대부분의 종교적 텍스트에서는 신의 강림 혹은 방문은 폭풍이나 구름과 같은 동반현상과 함께 묘사하여 권능에 찬 신의 방문을 묘사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불임의 노부부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 2)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 (1) 아브라함의 손님대접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한다. 먼저 물을 가져와 나그네들의 발을 씻게 한다. 여행 중에 지친 자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접 중의 하나이다. 나그네들이 발을 씻고 난 후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아마도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창 18: 4). 둘째로 여행 중에 시장했을지도 모를 손님들에게 먹을 떡을 대접하여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창 18: 5a).

이러한 대접은 나그네 된 자에게 한 대접을 야훼 하나님께 한 대접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창 18장 5절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을 **אֲנִי אֲדָמָה**(압더젬/당신들의 종)으로 칭한다(참조 창 18: 3). 그리고 나그네들 역시 아브라함의 친절과 겸양을 감사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희망하는 인간의 요청에 답변을 내리시는 신과 같이, 대답한다:

**וַיֹּאמְרוּ כֵן תַּעֲשֶׂה לָּנוּ כְּאֲשֶׁר דִּבַּרְתָּ**

(바요머루 켄 타이쉐 카이셰르 디바르타/그러자 그들은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 아브라함의 열망에 대한 신의 응답과 같다.

아브라함의 친절은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창 18: 6-8)에서 다시 한번

14) 레빈, 「편집자 야훼기자」, 238쪽.

강조되어 묘사된다. 이 과정에서 사라가 등장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한 셈이다. 아브라함은 천막에 있는 사라에게로 급히 달려가서, “급히 (알갱이가 있는) 가루 세 스아로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고 지시한다(창 18: 6). 또 아브라함은 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더불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나그네 앞에 차려놓고, (시원한) 나무 아래에서 드시도록 하였다(창 18: 7-8).

이 단락의 특이성과 관련하여 궁켈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시장한 손님들을 지나치게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주인의 친절한 배려로 이해였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은 식사가 화려하게 풍성하게 잘 차려졌다는 점이다. 먼저 빵의 양이 엄청나다. 1 스아는 12,148리터의 양이다. 세 스아의 밀가루로 만든 빵은 남자 세 사람이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sup>15)</sup>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부를 암시(참조 창 13: 2; 24: 35)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역시 손님들이 하늘로부터 왔기에 대접의 차원을 넘어,<sup>16)</sup> 천국 찬치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2) 타자이신 하나님

이러한 사상은 후에 신약성서에 완전히 발전된 사상으로 나타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40).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은 의로운 자가 주께서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것(마 25: 35-36)과 동일하다.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와 신을 동일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나(=자아) 아닌 타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으로서의 타자와 신의 타자성은 구별된다. 레비나스

15) H. Gunkel, *Genesis*, 195-196쪽.

16) 레빈, *유클*, 239쪽.

는 주장한다. “신은 단순히 ‘최초의 타자’ 또는 ‘탁월한 타자’ 혹은 ‘절대 타자’가 아니라 타자와는 다른 타자, 타자의 타자성에 앞서며 이웃에 대한 윤리적 의무에 앞서고, 부재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초월적이고 익명적 있음(il y a)의 소란스런 이동과의 가능한 혼동에 이르기까지 초월적인 타자성에 의한 타자이다.”<sup>17)</sup>

레비나스의 주장은 세 남자의 나그네(창 18장)로 강보에 싸인 어린 아기(마 2장)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다.

레비나스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타자의 얼굴을 통하여 계시하신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과부나 고아와 같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내시므로, 우리는 다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sup>18)</sup>

레비나스는 유대교를 한마디로 메시아주의라고 규정한다. 메시아는 ‘고통을 경험하는 정의로운 자’이다. 메시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스스로 떠맡는 그런 자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메시아”이며, “누구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sup>19)</sup>

고통받는 자의 한탄과 질문과 기도 속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며 그는 당신이라 불리우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레비나스는 이것이 신의 현현 즉 신의 흔적이라고 한다.<sup>20)</sup>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직면하면서 그 괴롭히는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만 하나님의 현현을 느낄 수 있다. 즉 모욕 받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나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가간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열망하는 관계이다.<sup>21)</sup>

17) 콜린 데이비스, 「엠마누엘 레비나스 - 타자를 향한 욕망. 레비나스 입문」 (김 성호 옮김), (서울: 다산글방, 2001), 190쪽. 원제는 Colin Davis, *Levinas. An Introduction*. 민 대훈, 「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 금령 해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7), 144쪽 재인용.

18) 민 대훈, *읽글*, 150-151쪽.

19) 베른하르트 타우렉, 「레비나스」 (변 순용 옮김), (고양: 인간사랑, 2004), 67쪽. 원제는 Bernhard H. F. Taureck, *Emmanuel Lévinas zur Einführung*.

20) 민 대훈, *읽글*, 151-152쪽.

21) 한 정선, “레비나스, 신의 흔적에 대한 현상학,” 「신학과 세계」 42호 (서울: 감신대, 2001), 346쪽.

#### 4. 희망을 일깨우시는 하나님

##### 1) 하나님의 '아들 약속'

창 18장 9-15절에서는 식탁대화가 이어진다.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의 아낌없이 드리는 식사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종의 시험에 합격한 셈이다.<sup>22)</sup> 그러나 엘리사와 수벰 여인과의 대화와는 달리, 후한 손대접에 대한 보상 제의가 없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손님 대접에 대한 보상으로 아들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아브라함의 손대접은 나그네로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며, 아들의 약속은 희망을 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의 선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친절한 손님 접대에 대한 보상으로 아들의 약속이 주어진 왕하 4장과는 차이가 난다.

이제 손님들은 그들의 방문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즉, 불임의 노부부에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남자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없이 “보십시오 장막 안에 있습니다!”고 간단히 답하였다.

이 질문은 식탁 대화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다(창 16: 8). 이 질문은 사래의 현 위치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입을 알리는 신호이며, 잊혀진 노부부의 희망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그네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대화에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임을 은연 중에 자처하는 동시에 그들의 방문목적도 알린다. 이제부터 대화를 이끌고 가는 자는 손님으로 찾아온 세 사람의 남자들이 아니라, 1인칭으로 표현된 야훼 하나님이다.<sup>23)</sup>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나는 네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창 18: 10a)고 선언한다. 오랜 불임이었던 노부부에게 기적적인 아들의 출생을 예고한다.

22) 궁켈은 창 18장을 일종의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로 간주했다. H. Gunkel, Genesis, 196-197쪽.

23) 3인 복수의 주어는 9절에 나타나며, 그리고 16절에 다시 나타난다. 그 사이의 단락(10-15절)에는 3인칭 단수의 주어와 직접화법으로 표현된 1인칭 단수의 주어가 나온다.

## 2) 사라의 인간적 확인과 하나님의 확인

사라가 천막문 뒤에서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들었다(창 18: 10b). 아들의 약속은 신적인 기적의 손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먼저 아들의 약속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나오기에 앞서,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고통이 되었고(창 18: 11a), 그래서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생리<sup>24)</sup>를 하지 않는 상태임을 말한다(창 18: 11b). 야훼의 약속은 인간의 자연적인 출산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확인시킨다. 이삭의 출생은 인간적인 모든 개연성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자녀의 출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킨다.

야훼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반응을 통하여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된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창 18: 12a). 웃음이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한편으로 간절한 기다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되며, 행복한 웃음이 될 것이다(참조 창 21: 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웃음은 단지 남정네들 간의 위트(Witz)에 지나지 않는다. 사라는 사랑의 즐거움(גִּילֵךְ)<sup>25)</sup>이 사라졌고, 남편도 늙었음을 되뇌인다(창 18: 12b).

이러한 사라의 인간적 반응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일축한다: “어찌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가!”(창 18: 13b).

동시에 본문은 갑자기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어투를 전환하면서, 야훼의 권능을 강력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야훼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창 18: 14a). 사라의 기적적인 수태를 의심하듯, 현본문은 사라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회의를 함께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권능을 의심했다. “출애굽 당시 베풀었던 많은 기적이 왜 지금은 없는가!”라는 회의에 찬 질문은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제시되었으며, 특별히 포로기 때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참조 사 6: 13).<sup>26)</sup> 이러한 신앙적 회

24) מִיָּמֵי אִשָּׁת (여인의 길)을 여성의 ‘생리’로 이해한다. 참조 왕 대일 율글, 110쪽.

25) 이 말의 의미는 부부의 성생활에서 오는 즐거움을 말한다. 참조 왕 대일, 율글, 105-106쪽.

26) W. Brueggemann,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

의를 일축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표현으로 야훼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며,<sup>27)</sup> 또 ‘야훼께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는 설득적인 어귀로 야훼의 권능을 표현하기도 한다.<sup>28)</sup>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앞서 했던 약속을 반복한다: “내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 18: 14b). 이 약속은 엘리사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종(=엘리사)를 통하여 수넵 여인에게 내려졌으며, 그 약속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은 작은 자에게 내려준 또 다른 약속도 언제나 이루어짐을 은연중에 확인시킨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웃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창 18: 15a).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작은 믿음을 책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태도이다.

### 3) 약속의 의의

창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창 21장 1-8절에서 실현된다.<sup>29)</sup> 이삭의 존재는 그의 양친의 자연적인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훼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영속, 이와 함께 하나님이 백성의 존속과 변영은 그때 그때마다 야훼의 기적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며, 여기에서 야훼의 효험 있는 사랑이 나타난다.<sup>30)</sup>

족장사 이야기의 중심부에는 항상 아브라함의 체험이 놓여 있다. 그러나 창 16장 18장에서는 주변부에 있는 사라가 사건의 중심에 놓인다.<sup>31)</sup> 하나님의 약속은 천막 뒤에 있는(감추인)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바, 이스라엘의 왕국은 예언자를 통하여

판사, 2000), 253쪽. 그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 동구, 「신명기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4), 183-184쪽.

27) 참조 한 동구, 「신명기 해석」, 182-186쪽, 293-295쪽.

28) 사 40: 26; 59: 1; 렘 32: 17, 27. 참조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WBC 성경주석 2)」(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140쪽.

29) “족장의 아내의 무자식”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넘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창 25: 21)와 야곱의 아내 라헬(창 29: 31)에게서도 볼 수 있는 아뷔스트의 중요한 모티브이다.

30) 레빈, 윗글, 239-240쪽.

31) 레빈, 윗글, 240쪽.

인도되어야 하며, 이는 한 여인 한나의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듯,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꿈(לְיִשְׂרָאֵל וְיִגְדֹל וְיִהְיֶה לְגוֹי גָּדוֹל וְיִהְיֶה לְגוֹי גָּדוֹל) 위대한 국가)이 한 여인 사라를 통하여 성취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인간적인 작은 믿음을 가진 자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본다.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째(מַה)라는 말로 반박한다. 창 15장과 16장에 이어 여기에서도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펼칠 놀라운 새로운 세계, 그들이 열망하는 희망에 찬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덕담이나 위트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믿음의 소산이다: “야훼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창 18: 14a). 경건한 자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그의 백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내년, 내가 네게로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일깨워 준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펼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 4) 약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

창 18장 17-19절에서는 여러 개의 전승들이 함께 묶여 하나님의 약속 단락을 형성한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창 18: 17),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창 18: 18),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창 18: 19)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것과 둘째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는 것이다. 사라에게 내린 아들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씨앗인 것이다.

##### (1) 위대한 국가

창 18장 18a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은 창 12장 2-3절의 약속과 처음과 끝이 일치하며, 창 12장의 לְיִשְׂרָאֵל וְיִגְדֹל(위대한 국가로)대신에 מְצִיחַ לְיִשְׂרָאֵל וְיִגְדֹל(크고 강

한 나라로)으로 또 창 12장의 כל משפחת האדמה (땅의 모든 가족들)대신에 כל וגוי הארץ (땅의 모든 민족으로) 읽고 있다.<sup>32)</sup>

창 12장 2-3절	창 12장 18절
ואעשה לגוי ג ו ואברכה ואגדלה ש והיה ברה וארכי מברכה ומקלה א ונברכו בה כל משפחת האדמה	ואברהם היו יהיה לגוי גדו ועצום ונברכו בכ ול וגוי הארץ

국가나 민족을 히브리어 עם(암/백성, 민족)이나 גוי(고이/나라, 족속)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파 공동체를 형성한 이래로 사용하였다. 사사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공동체의 일원을 עם으로 불렀다(삿 5: 2, 9, 11, 13, 14, 18), 특히 11절에서는 이들을 야훼의 군대라 불렀다.

군사적 관점에서의 용례는 이후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에서도 계속 사용되었다.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한 백성(עם גדול 신 1: 28) 그리고 멸망한 아낙족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신 2: 10; 2: 21; 9: 2)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으로 물리적 강함을 나타냈다.

단순한 구성원을 지칭하는 표현을 넘어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기원전 8-7세기의 신명기 개혁운동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과 구별하여 עם קדשו(암 카도쉬/거룩한 백성), 야훼 하나님께 속한 그의 소유의 백성이라 불렀다(신 7: 6; 참조 신 14: 21; 26: 19; 28: 9). 신 7장의 본문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나타나나, 역사적으로 기원전 8-7세기 앓시리아를 의미한다.

신명기 개혁운동가들은 야훼의 소속성을 통해 이스라엘과 적을 구별하

32) 레빈은 창 12장 2-3절을 창 18장 18a절에서 수용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참조 레빈, *윗글*, 264-265쪽, 오히려 창 12장 2-3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를 넘어 족장사의 종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자 하였다. 그들은 선명한 소속성을 통해 민족 전체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군사적인 우위를 추구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불굴의 저항 정신으로 적과 대치하고자 하였다. “거룩한 백성”이란 적에게 굴복하지 않은 야훼 공동체의 순수성의 주장이며, 하나된 공동체의 연대의식의 표현이며, 야훼의 권능을 굳게 신뢰한(참조 사 7: 9) 신실한 신앙공동체의 표현이다.

이러한 전통은 이후의 역사에서도 계속 발전하여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일으킬 나라는 큰 나라(לְגֹיִם גְּדוֹלִים)이다(출 32: 10; 참조 민 14: 12; 신 9: 14; 참조 강한 나라 אֱמוּנָה גְּדוּלָה 고이 이쭈/강한 나라 사 60: 22). 역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나라는 크고 강한 나라(אֱמוּנָה לְגֹיִם גְּדוֹלָה)이다. 그 나라는 말씀에 기초한 나라이며, 말씀으로 완성할 나라이다(창 18: 19).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לְגֹיִם גְּדוֹלָה)란 하나님의 법이 그들 곁에 있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민족을 가리킨다(신 4: 5-8).

이러한 이념적 발전은 다시 일으킬 나라를 거룩한 나라(אֱמוּנָה קְדוּשָׁה)로 부르기도 한다(출 19: 6; 참조 거룩한 민족 אֱמוּנָה קְדוּשָׁה 사 62: 12). 이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천명한 표현이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며 나라라 자처한다. 세계의 중심은 물리적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바른 삶의 원리인 야훼의 말씀에서(사 2: 2-5), 세계를 향한 섬김(과 축복의 중재)에서 나온다는 이념의 표현이다(출 19: 6; 사 61: 6).

## (2) 축복의 중재자

아브라함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방의 지배하에서 큰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되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로 살아가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

한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강한 나라들을 이스라엘과 야훼의 적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경건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 준다. 세계의 중심은 물리적 힘을 지닌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음을 말한다. 거룩한 중심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나오며(겔 40ff.) 바른 삶의 원리(사 2: 2-5)가 퍼져 나온다. 이러한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 부른다, 그들은 항상 세계를 향하여,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섬기는 나라이며, 온 세계가 이스라엘(יִשְׂרָאֵל יְיָ 고이 카도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이웃의 축복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퍼져나가(아들의 약속) 마침내 이루어질 나라는 세계를 향해 섬김의 길을 가는 나라이기에 나라이다.<sup>33)</sup> 그래서 창 12장에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יְיָ יִּי גּוֹיֵ הָאָרֶץ)을 거대한 가족 공동체(מִשְׁפָּחַת הָאָבְרָם) 미쉬퍼호트 하이다마)로 읽고 있다.

### 5. 요약과 결론

이상의 분석은 이제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의 수행해 왔던 구속사(Heilsgeschichte)에 대한 연구를 넘어, 다문화적 삶의 원리를 추적하였다.

양자는 모두 공동의 삶의 자리, 즉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강한 이방의 세계에 포함되어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전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보호에만 관심을 보였으나, 이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세계 모두에게 베푸신 구속을 살펴보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지닌 사명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자기 보존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한편으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길을 찾았다.

족장사의 분석, 특히 창 18장 1-19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다문화적 삶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야훼 하나님은 (절대

33) 전승사적으로 볼 때, 신명기적 관점의 창 18장 18a정의 크고 강한 나라(גּוֹי חָזָק וְגָדוֹל)는 창 12장 2절의 위대한 나라(יְיָ יִּי גּוֹיֵ הָאָרֶץ)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적) 타자로서 인간적 타자와는 구별되나, 그를 열망하는 자에게 단지 타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둘째, 타자이신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존재에게 희망을 일깨우신다. 고통의 불임의 노부부는 새로운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처절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희망을 일깨워 주셨다. 하나님은 나그네 된 자를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며, 희망을 일깨워 자기 보존의 길을 열어주셨다.

셋째,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려주신 이들의 약속은 다문화적 삶의 자리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씨앗이며, 열쇠이다. 이스라엘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함으로써 의미있는 존재로 자리매김 한다.

‘다문화적 삶의 원리’의 연구는 21세기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며, 성서적 삶의 원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고 한국과 세계가 공존의 길을 걸어 갈 것이며, 나아가 한국은 세계를 섬기는 중에 중심자로 역할하는 길을 얻을 것이다. 성서의 삶의 원리가 한국인의 삶의 원리, 나아가 세계인의 삶의 원리로 발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이룩하게 한다.

## 5. 참고문헌

- 강 성열, 「창세기 강해」(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데이비스, 콜린, 「엠마누엘 레비나스 - 타자를 향한 욕망. 레비나스 입문」(김 성호 옮김), (서울: 다산글방, 2001). 원제는 Colin Davis, *Levinas. An Introduction*.
- 레빈, 크리스토프 「편집자 레빈」(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원제는 Ch., Levin, *Der Jahuist* (FRLANT 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몰트만, 「희망의 신학」(전 경연/박 봉량 옮김) (서울: 기독교서회, 1982).
- 민 대훈, 「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 금명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7).
- 왕 대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서울: 종로서적, 1995).
- 차 준희, 「창세기 다시보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타우렉, 베른하르트 「레비나스」(변 순용 옮김), (고양: 인간사랑, 2004). 원제는 Bernhard H. F. Taureck, *Emmanuel Lévinas zur Einführung*.
- 폰 라트, 「창세기(국제성서주석1)」(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원제는 Rad, G. von, *Das erste Buch Mose. Genesis(ATD 5)*, (Göttingen 1964).
- \_\_\_\_\_, 「구약 신학」(경북 왜관 : 분도출판사 I 1976, II 1977).

- 한 동구, 「신명기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4).
- \_\_\_\_\_, 「오경 이해」(평택: 프리칭 아카데미, 2006).
- \_\_\_\_\_, “나그네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 (창 16장),” 「구약논단」 제 13권 1호 (통권 23호 2006. 3.31.), 12-30쪽.
- \_\_\_\_\_, “포르기의 성전사상,” 「구약논단」 제 18집(2006.8.31.), 53-72쪽.
- \_\_\_\_\_, 「창세기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3).
- 한 정선, “레비나스, 신의 흔적에 대한 현상학,” 「신학과 세계」 42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1), 336-355쪽.
- Blum, E., *Die Kö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yun: Neukirchener Verlag, 1984).
- Brueggemann, Walter,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강 성열 옮김) (서울: 한 국장로교출판사, 2000).
- Gunkel, H., *Genesis übersetzt und erklärt*(HAT I),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2<sup>5</sup>, 1977<sup>9</sup>).
- Wenham, Gordon J., 「창세기 16-50 (WBC 성경주석 2)」(윤 상문/황 수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 Westermann, C., *Genesis* (BK 1), (Neukirchen-Vluyun: Neukirchener Verlag, 1981-1983).
- \_\_\_\_\_, *Die Verheißungen an der Väter* (FRLANT 197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 검색어

나그네살이  
타인  
사라  
약속  
다문화

---

# The Theology of promise

## A Multi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Patriarchal History

---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By many specialists so far, the perspective of salvific-history has been applied to the reading of the patriarchal history in the book of Genesis.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study aims to go beyond the perspective and read the principles of multicultural life in the patriarchal history.

The Israelites were living together with the gentiles, who were stronger than them and whom the Israelites were subject to. While the former, the perspective of salvific-history, has mainly concerned what YHWH did on behalf of Israel for her protection, the latter pays attention to what YHWH did for the salvation of both Israel and the gentiles and what Israel did on behalf of the gentiles. The Israelites contrived to survive in the midst of the neighboring gentiles; however, conversely, they also sought the 'middle' way in order to live side by side with other nations, even helping their way through.

We find three principles of multicultural life in the patriarchal history, especially in Genesis 18: 1-19. First, YHWH, in the likeness of a wandering stranger, appeared before Abraham, another wandering stranger. Though YHWH God's the (absolute) Other i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humane Other, he appeared as the Other before those who were yearning for him.

Second, God, the Other, gives hope to those who are like wandering strangers. He himself visited the aged couple, who was infertile and hopeless, but left them hopeful. God did not ignore the wandering strangers in despair but opened a hopeful way for them not to be extinct.

Third, God's promise of hope creates a new identity. The promise of a son that God gave to Abraham and Sarah was a seed and a key wha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multicultural context of life. The Israelites do not live alone; they live together with other nations and, notably, mediate God's blessing to them and for them.

Investigating 'the principles of multicultural life' will open a way for the 21<sup>st</sup> century Korean churches and society to walk forward, for 'Israel and the gentiles' and 'Korea and other nations' to walk together, and for Korea to walk on as a vital servant of the world. The principles of life in the Bible may develop to be the principles of Korean life and further of global life, ultimately realizing the world of God.

#### **Keywords**

Wandering life  
The Other  
Sarah  
Promise  
Multicultural